

옛 장흥교도소 문화복합공간 변신 ‘빠빠용zip’ 내일 개관

40년간 운영되다 2015년 폐쇄...장흥군, 4년간 리모델링·콘텐츠 구축
감시탑·수감동 등 원형 보존+현대 예술 콘텐츠...다양한 체험·전시 등

40년간 운영되다 폐쇄된 옛 교도소가 ‘빠빠용 zip’이라는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장흥군은 4년 간의 새단장을 마친 옛 장흥교도소가 빠빠용zip이란 이름으로 25일 정식 개관한다고 밝혔다.
‘빠빠용zip’은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뜻하는 빠빠용(papillon)과 다양한 가능성을 압축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의 ‘zip’이 결합된 이름이다.
장흥교도소는 1975년부터 약 40년간 운영되다 2015년 폐쇄됐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산업에 선정돼 약 4년간 간의 리모델링과 콘텐츠 구축 작업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감시탑, 수감동 등 기존 교도소의 건축적 특징을 최대한 원형 보존하면서도 그 안에 현대 예술과 문화 콘텐츠를 채워 넣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빠빠용zip’은 ▲교정의 진짜 역사가 담긴 전국 최초의 교정역사전시관 및 장흥 교도소 아카이브관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연대별 접견체험을 할수 있는 접견체험장 ▲세상과 잠시 떨어져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오롯이 자신에게 몰두할 수 있는 글감옥(옛 여사동) ▲소규모 공연 및 강연이 가능한 다목적홀인 교회당 ▲원형보존 그대로의 공간인 내부수용동 등 다양한 시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옛 장흥교도소에서 촬영한 100여편의 영화나 드라마의 장소들은 스태별로 아카이빙 전시물과 함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오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열리는 제18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기간동안에는 영화 ‘빠빠용’이 교회당 공간에서 상영되며, 주말의 명화, 마음은 콩밭, 서로살림터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빠빠용zip은 장흥군의 문화적 자산을 한층 풍부하게 하고 지역민에게는 자긍심을, 방문객에는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는 장흥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오랜 시간 닫혀있던 공간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방문객들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고 새로운 영감을 얻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문화예술복합공간 ‘빠빠용zip’으로 변신한 옛 장흥교도소 전경. <장흥군 제공>

함평 막걸리 지게미, 천연비누·주방세제 재탄생

농기센터, 군민 재활용 역량강화
20여명 대상 업사이클링 교육

함평군이 전통 식문화 교육 후 남은 부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교육을 통해 자원 재활용과 주민 역량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며 호응을 얻었다.
함평군은 막걸리 지게미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교육을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3회에 걸쳐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플러워푸드 교육장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함평의 맛을 담은 전통주 만들기 교육’ 이후 남은 막걸리 부산물 ‘지게미’를 활용해 진행됐으며 군민 20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는 지게미를 활용한 천연비누, 바디스크럽, 주방세제 등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직접 만들어 보며 업사이클링의 가치를 실감했다.
업사이클링이란 폐기물이나 부산물 등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활용해 품질이나 가치를 높인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교육에 참여한 함평군 우리음식연구회 유순옥 회장은 “막걸리 지게미의 잠재적 가치를 재발견하



함평군 플러워푸드 교육장에서 열린 ‘막걸리 부산물 지게미 업사이클링 교육’에서 참여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고, 실생활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학습할 수 있어 유익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문정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전통 식문화에서 출발한 지게미 활용 교육이 K-뷰티 산업

과의 연계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시도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콘텐츠 발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강진군, 선상 낚시대회 앞 주꾸미 3만4천마리 방류

9월 ‘강진피싱마스터스’
어족자원 보호·생태계 균형

강진군이 ‘2025 강진피싱마스터스’를 앞두고 지난 17일 해역의 어족자원 보전과 생태계 균형 유지를 위한 주꾸미 치어 3만 4000마리를 대규모 해상에 방류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진군, 강진피싱마스터스 조직위원회, 마량어촌계, 강진군바다낚시어선협회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방류한 주꾸미 치어는 전염병 검사를 마친 0.5cm 이상의 우랑종자이다. 주꾸미는 성체가 돼도 서식지 주변에서 수 킬로미터 이내에서만 활동하는 정착성 어종으로 이동 범위가 넓지 않아 치어를 방류할 경우 수산자원 조성 효과가 크다.
강진군은 이번 주꾸미 치어 방류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후속 방류 사업과 어족자원 관리 대책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과 더불어 어민 소득 증대, 관광객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진희 강진군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방류는 단



강진피싱마스터스 조직위원회와 마량어촌계, 강진군바다낚시어선협회 관계자들이 대규모 해상에서 주꾸미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강진군의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과 어민의 안정적 생계 기반 마련이라는 중장기 목표의 일환이다”라며 “강진 마량항이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5년 강진피싱마스터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선상 낚시대회로 오는 9월 ‘2025 강진피싱마스터스 문어·주꾸미 선상낚시대회’가 열린다. 참가 신청 및 접수는 8월 초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나주시, 광주·전남 첫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금’

최대 연 180만원 지역상품권...생활 안정·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나주시가 광주·전남 최초로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2025년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며 예술인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7월 14일) 기준으로 나주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

명서’ 유효 소지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1인 가구 기준 월 2,392,013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8월 22일까지 시청 문화예술과 혹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급은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나주시상품권(모바일 또는 지류 중 선택)

으로 1인당 연 180만 원(분기별 4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활력소득 지원금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창작 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는 모범 사례로 자리잡길 기대한다”라며 “예술인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예술활동 증명서 발급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 절차와 자료 제출 요건에 대한 상세한 안내도 제공하고 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화순이 키운 복숭아 맛보세요

26~27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서 ‘명품 복숭아 축제’

화순군이 화순복숭아연합회농조합법인(대표 이교육) 주관으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제15회 화순 명품 복숭아 축제’를 연다.
화순 명품 복숭아 축제는 화순군의 대표적인 여름 농산물인 복숭아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성황리에 개최된 제14회 복숭아 품평회가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 역시 높은 기대 속에 열리게 됐다.

축제는 26일 관광객 놀이마당을 시작으로 복숭아 깎기, 복숭아 패션쇼, 복숭아 가요제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개막식에서는 연합회에 속한 13개 작목반에서 출품한 복숭아에 대해 복숭아 당도 및 과실 크기 등을 심사하여 대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13명을 시상할 계획이다. 또 축제장 한쪽에 마련된 복숭아 품평회장에서는 품평회 출품작 전시 및 복숭아 농가들의 판매가 함께 진행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담양군, 방치된 빈집 고쳐 청년세대 임대

전남개발공사와 협약...신혼부부 등 지역 정착 유도

담양군이 전남개발공사와 ‘빈집 활용 주거복지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2일 열린 협약식에는 정철원 군수와 장종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해 담양군 도시과,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빈집 활용 주거복지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해, 인구 유입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담양군 내 방치된 빈집 2곳을 리모델링해 월 임대료 1만원 수준의 임대주택

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장종모 사장은 “담양군과 상생 협력모델 발굴로 주거복지를 다각화하고,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활용, 정주인구 유입과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빈집 정비를 넘어, 정주 인구 유입과 청년층 유치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해 살고 싶은, 살기 좋은 담양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장성군민의 상’ 5개 분야 후보 추천

교육·문화·예술 등 29일까지

장성군이 제48회 장성군민의 상 후보자 추천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
접수분야는 ▲교육·문화·예술 ▲사회복지·체육 ▲향토방위 ▲산업경제 ▲농업 5개 부문이다.
자격요건은 ▲각 분야에 해당되는 공적이 뚜렷한 사람 ▲도단위 이상 공식 대회나 전시회, 학술연구 등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거나 창·개발·정신을 보여줘 국가적 보전 가치를 공인받은 경우 ▲해당분야 성과를 높이는 데 있어 몰입양면으로 공

이 큰 군민이다.
추천은 개인 또는 기관·단체장, 읍면장이 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세대주 20인 이상이 서명한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천서는 오는 2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장성군민의 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분야별 수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상은 오는 9월 26일 군민체육대회와 함께 열리는 장성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경찰 ‘5대 반칙운전 STOP!’ 캠페인



화순경찰은 23일 ‘5대 반칙운전 STOP!’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화순경찰서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연합회가 함께하였으며 화순 5일장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유형을 알리는 홍보 전단을 배부했다.
‘반칙운전’은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공정한 방식으로 교통 소통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교통질서 위반행위를 말한다.
경찰은 이를 계속 내버려 두면 운전자 불편은 물론이고 보복운전 등 2차 범죄가 일어날 수 있어 5대 위반행위(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를 선정하고 7·8월 두 달간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9월부터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